

이균영 소설의 고향 표상*

박장례(순천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역사의 진혼곡 |
| 2. 가계의 전설 | 5. 맺는 말 |
| 3. 전통과 활력의 장 | 부록: 작품 연보 |

1. 들어가는 말

소설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이균영(1951~1996)은 문학적 글쓰기와 역사적 글쓰기를 병행하였다. 이균영이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 서사 주제로 삼은 것은 가족, 고향, 사랑, 도시, 역사 등이다. 1980년대 작가 그룹의 대표 주자인 이균영의 문학세계가 개성적인 매력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독한 작가'로 남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이동하의 견해¹⁾대로, 이균영이 작고한 지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B5A07047640]. 논문 심사 과정에서 귀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1) 이동하, 「작품론—80년대 작가 그룹의 선두주자, 이균영」, 『멀리 있는 빛』, 정음사, 1986; 이동하, 「인생을 관조할 줄 아는 예지의 힘」, 『노자와 장자의 나라』, 중앙일보사, 1995.

지만 그의 소설 세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²⁾

1977년 1월 단편 「바람과 도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한 이균영은 80년대 중반까지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균영은 1986년 자신의 첫 장편소설 『겨울 꿈의 색상』을 발표한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문학 활동을 거의 중단한 채 역사학자로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이 시기 이균영은 학자로서 필생의 역작이 된 『신간회 연구』(1993)를 상재함으로써 이듬해 제8회 단재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소설 쓰기 혹은 ‘문학적인 내 삶은 역사 공부를 포함한 나머지 생활 거의를 포괄’³⁾한다고 토로한 이균영은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뒤 문학 활동을 재개하였다. 1995년 이균영은 장편소설 『노자와 장자의 나라』를 통해 작가로서의 행보를 다시 내딛었으나, 이듬해 1996년 11월 21일 뜻밖의 교통사고로 운명하고 말았다.

이균영은 짧은 생애 동안 단편 28편, 중편 5편, 장편 4편, 동화 10편 등을 창작하였다.⁴⁾ 이균영의 소설 세계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는데, 등단작 「바람과 도시」(1979)를 비롯하여 첫 장편 『겨울 꿈의 색상』(1986)에 이르기까지가 전기에 해당되고, 10년 가까운 공백 이후 발표된 장편 『노자와 장자의 세계』(1995)를 비롯하여 유작 『떠도는 것들의 영원』(2001)까지가 후기에 해당된다. 중편 「어두운 기억의 저편」은 잃어버린 기억 찾기를 통해 분단의 의미를 새롭게 문제 삼은 분단문학의 수작이라는 평가⁵⁾를 받으며 그의 전기 소설 세계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G. 레이코프와 M. 존슨의 은유 이론을 이균영 소설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사학을 통해 이균영 소설의 주제를 조명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⁶⁾ 이균영의 장편 『떠도는 것들의 영원』을 담론 분석을 통해 접근

2) 다음 글에서 이균영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박규원, 「아내가 본 작가 이균영-여전히 남편의 따뜻한 사랑은 남아」, 『떠도는 것들의 영원』, 문학사상사, 2001; 정채봉, 「이균영론-종교적 의미와는 다른 원죄의식」,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3)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6, 4면.

4) 이균영의 작품 연보는 이 논문 말미에서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5) 권성우, 「작품 해제-이균영 선생을 기억하는 어떤 마음의 등불」, 이균영, 『떠도는 것들의 영원』, 문학사상사, 2001; 송봉은, 「한국 전후소설의 트라우마(trauuma)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엄정호는 G. 레이코프와 M. 존슨의 은유 이론(『삶으로서의 은유』)을 이균영 소설에 적용한 결과, 그의 소설에 마음이나 감정 그리고 기억과 관계된 은유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소설의 주제와 연관된다고 분석하였다(엄정호, 「소설에

함으로써 이 소설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제 양상을 규명한 연구도 눈여겨볼 만하다.⁷⁾

이균영은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자유는 작가의 정신을 이루는 근간이라 확신합니다. 저의 소설 역시 고향의 유년 시절과 같이 자유로운 공간을 보상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공간이었습니다.”⁸⁾라고 밝힌 바 있는데, 고향은 이균영 소설의 시공간을 관통하고 있다. 이균영은 자전적 체험과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 견해를 바탕으로 고향을 표상하였다. 이 글은 고향 표상을 중심으로 이균영 소설의 시공간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소설이 분단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가족 서사적 특성, 지역의 문화전통과 언어를 재현한 지역문학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 가계의 전설

이균영 소설에서 고향은 가족사의 영광과 쇠락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보리」(1980), 「어두운 거리의 침묵」(1980), 「불붙는 난간」(1980) 등은 한 집안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들은 귀향 모티프와 탈향 모티프에 기반하고 있다. 고향을 가족의 삶의 터전으로 표상하는 경우, 대개 고향은 어머니 세계로 표상된다. 예를 들면 귀향소설의 대표작인 이청준의 「눈길」(1977)에서 고향은 강인한 모성애를 상징한다. 이와 달리 이균영 소설에서 고향은 아버지 세계를 표상한다. 아들 세대는 고향을 떠나 더 넓은 세계로 향하지만, 이는 고향과 영원히 이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부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이다. 아들 세대는 결국 아버지 세계로 귀환하기 위해 고향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이다.

「보리」는 산업화와 도시화 시기 농촌 출신의 세 남매가 삶에 정착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가난과 역경을 담고 있다. “철학은 본질적으로 귀향”이라는 노발리스의 말처럼

나타난 은유 분석 시론, 『반교어문연구』 13, 반교어문학회, 2001, 105면.

7) 백형심, 「이균영의 『떠도는 것들의 영원』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8) 이균영, 「새로운 정신의 지평—제8회 이상문학상 수상연설문」,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 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399면.

「보리」는 귀향 모티프를 통해 가족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이 소설은 세 남매가 타향(도시)과 고향(농촌)에서 흩어져 살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고향땅에 모여 지낸 과거를 되돌아보고 친밀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모와 함께 삶을 꾸려간 큰아들 박석기, 교육을 통해 입신하기 위해 도시로 떠난 큰딸 박영숙과 둘째아들 박민기가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이다. 고향에서 가난하지만 안전한 시절을 보내던 박민기는 산업화 열풍이 몰아치던 시절 농촌의 수재라면 누구나 그러했듯이 큰누나의 강권에 의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로 한다. 아버지 박서방은, 자신의 아버지가 장돌뱅이로 떠돌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전답을 이어받아 3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다가, 결국 이 땅을 팔아 아들의 교육비를 마련한다.

박서방은 논두렁에서 갑자기 눈으로 뛰어들더니 서릿발이 선 곳을 다독다독 밟았다. 차마 보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표를 주듯.

형제도 아버지를 따라 보리를 밟았다.

「보리는 밟아야 뿌리에 심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한 두턱을 다 밟아 나갔다.

「민기는 서울 가면 고생일 것이다. 그러나 이 보리처럼 살아라.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찾아라」

다시 찾아라! 찾아라!¹⁰⁾

슬픔을 누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부자의 모습이 간결한 단문을 통해 인상 깊게 그려져 있다. 아버지는 집안의 터전인 논을 유래를 전설처럼 들려주며 자식의 희망찬 앞날을 기원한다. 자식들이 도시에서 맞이하게 될 험난한 세상살이에 강인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인동을 상징하는 보리로 객관화된다.¹¹⁾ 민기가 고향을 떠난 것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이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쫓기듯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마음 속 다짐, 즉 금의환향에의 꿈이기도 했다. “그래, 너는 떠난다. 그러나 너는 돌아올 것이다. 네가 태어난 곳에서 너는 성인으로 태어

9) 전광식, 『고향—그 철학적 반성』, 문학과지성사, 2010, 7면.

10) 이균영, 「보리」, 『멀리 있는 빛』, 정음사, 1986, 230~231면.

11) 보리밭기는 이균영 소설에서 의미 깊은 장면으로, 「멀리 있는 빛」에서 다시 반복된다(이균영, 앞의 책, 332면).

난다”¹²⁾는 비디아다르 네이폴(Vidiadhar Naipaul)의 말처럼 이제 성인으로 돌아온 고향 땅에서 형제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들판으로 나간다.

형제는 하얗게 꽃이 핀 메밀밭을 지나 푸른 하지감자와 하양·노랑·보랏빛이 핀 장다리밭을 헤치며 들로 나갔다. 바람이 불면 익은 보리가 금빛 물결을 일구었다.¹³⁾

봄날의 들녘을 한 폭의 그림처럼 서정적으로 묘사해 놓은 대목이다.¹⁴⁾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한동안 격조했던 형제는 어린 시절 보리이삭을 줍던 들녘에서 서로의 상처를 위무한다. 어린 시절 형제는 함께 보리 이삭을 주워 책을 비롯한 언필, 고무신, 옷, 이발 값, 용돈 따위로 충당했다. 그들에게 들녘은 간고하지만 따듯한 추억이 어린 곳이었다. 고향에서 토박이로 살아온 형과 입신양명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서울에서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동생은 고향에서 만나 다시 친밀감을 회복하고 한결 성숙한 모습으로 결속한다.

「보리」가 산업화 시기 이촌향도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 화해의 서사를 담고 있다면, 「어두운 거리의 침묵」은 교육과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난 이들의 유예된 귀향을 그리고 있다. 고향 마을에서 자연을 자연 그 자체로 향유할 수 없었던 주인공 ‘나’는 고향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찾기 위해 서울로 이주한다. ‘나’가 고향의 새소리를 새소리로, 꽃을 꽃답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집안의 풍운과 비운 때문이다. ‘나’의 외조부는 4·19혁명 이후 국회의원이 되었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아버지는 장인을 수행하면서 정치에 몸을 담게 되지만, 5·16이후 정치적 판도가 뒤바뀌면서 아버지와 외가는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생략) 그러나 부친은 무엇인가 열심히 기다리는 듯했다. 지글거리는 라디오

12) V. S. Naipaul, *The Mimic Men*(London: Andre Deutsch, 1967), pp.204~205(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2011, 296면에서 재인용).

13) 이균영, 「보리」, 앞의 책, 238면.

14) 정채봉이 이균영의 소설이 “시적 구조를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의 소설 전반에서 시적인 대목이 발견된다(정채봉, 「이균영론—종교적 의미와는 다른 원죄의식」, 앞의 책, 397면).

한 대를 들고 뉴스 시간마다 그것을 귀에다 바짝 붙였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친은 곧 라디오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방 안에서 나오는 일도 드물었다. 뒷짐을 지고 마당가에서 멀리 산을 보고 서 있는 부친을 보았다. 부친의 등은 넓고 외롭게 비어 있었다. 그러나 다행일까, 부친의 눈물을 본 일은 없다.¹⁵⁾

이처럼 '나의 아버지는 낙향 후 정치적 재기를 꿈꾸지만 이 같은 희망이 결국 현실화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고, 누구 탓도 아니고 "다 사람 사는 일"¹⁶⁾이라 체념하며 유폐된 듯한 삶을 살아간다. '나는 고향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힘과 지위를 회복하고자 서울로 떠난다. 서울에서 '나는 부유한 집안의 덕지와 교제를 시작하지만 가난과 무력감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 못한다. 교육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나'나 취업을 위해 상경한 고향 친구 남명을 비롯한 시골내기들에게 귀향의 날은 한없이 유예된다. "잘 가거라. 잘 가거라. 고향을 가는 놈만큼 행복한 자가 또 있을까 보냐."¹⁷⁾라는 탄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균영 소설에서 고향은 시골내기들의 근원적인 향수의 대상으로 자리한다.

「불붙는 난간」은 임비 지역의 유지 이정준 일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임비 지역의 국회의원 이석구와 그의 아들 이정준, 고향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손자 이신욱,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폭력 세계에 입문한 신욱의 친구 배종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향하고자 하는 신욱의 여동생 이수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야기는 어려서 고향을 떠난 배종기가 임비로 귀향하여 이정준 일가를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귀향한 배종기와 토박이로 사는 이정준 일가의 삶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펼쳐진다.

소설은 임비의 이정표로 자리한 이정진 일가의 집을 주요 무대로 삼는다. 이 집은 이석구의 원택 혹은 붉은 벽돌 굴뚝집으로 불려진다. 붉은 벽돌집은 단순히 외관상의 특징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임비를 지키는 망루"¹⁸⁾ 역할을 하는, '임비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붉은 벽돌 굴뚝집이 임비의 상징이 된 것은 이정준의 할아버지가 주도한 역사(役事) 때문이다. 장마철이면 동천의 물이 넘쳐 임비의 집과 전답은 모

15) 이균영, 「어두운 거리의 침묵」, 『바람과 도시』, 책세상, 2007, 42면.

16) 이균영, 「어두운 거리의 침묵」, 위의 책, 42면.

17) 이균영, 「살꽃이 다리」, 위의 책, 155면.

18) 이균영, 「불붙는 난간」, 앞의 책, 332면.

래와 자갈로 뒤덮이게 되는데, 이정준의 할아버지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접고 대신 칠, 팔천석의 소출이 나오는 전답을 팔아 방죽을 만들기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임비로 모여든 일꾼들은 노래를 통해 노동의 피로를 덜고, 아울러 이정준의 할아버지의 공을 칭송했다.

‘어허야어허야 하늘덕이 이만한가. 자손대대 잊지마세 이 방죽이 반듯서서 이 임비에 풍년 오면 흰밥은 어허야 함지함지 어허야 고기는 어야야 두름두름 어허야 막걸린 어허야 동이동이 어허야 담배는 어허야 두름두름 어허야 먹고지고 어허야 피우고지고 어야야…….’¹⁹⁾

이처럼 이정준의 할아버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함으로써 임비의 은인이자 친구가 되었고, 그의 아들 이석구는 아버지의 힘을 입어 국회의원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이석구 의원의 아들 이정준은 낙선에 낙선을 거듭하였고, 그의 아들 이신욱 역시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집안은 영락하게 된다. 신욱은 붉은 벽돌집이 감옥이 되어 자신을 가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욱은 그 집의 난간 밖으로 차마 나가지 못하지만, 그의 동생 수진은 과거의 영광만 남은 집에 갇히기 보다는 그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 수진은 과거의 허울뿐인 집에서 탈주하여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그녀는 폐쇄적인 지역 사회에서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 외판원과 전화 교환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려 애를 쓴다. 그러다 결국 오빠의 친구 배종기에 의해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후 고향을 떠나게 된다. 배종기는, 누적된 빚으로 인해 집을 처분할 지경에 이른 이신욱에게 노름판에서 강탈한 돈을 보내며 자신과 수진의 관계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신욱은 배종기의 부당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의견을 묻게 된다.

“너에겐 이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네게 아이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각각 들 때쯤 애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보아라. 할아버지들 얘기를 해주어라. 그리고 항상 그것들이 자기가 쌓은 방죽을 이 방죽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정준이 돌아서서 표표히 사라졌다. 정직한 사람의 최후처럼 들은 비어 있었다. 들에 이어지는 바다는 어둠 때문에 이미 보이지 않았다.²⁰⁾

19) 이균영, 앞의 책, 372면.

20) 이균영, 앞의 책, 429면.

이정준은 배종기가 보낸 부정한 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충고하는데, 그것은 그가 한 평생 지켜온 삶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정준은 아들에게 방축의 전설, 즉 이타적이고 정직한 삶을 살아온 가계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게 된다. 이상의 소설들에서 고향은 가족의 터전이면서 아버지의 세계로 표상된다.²¹⁾ 아버지의 세계는 훼손된 세계로 그려지는데, 이는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붕괴 과정과 맞닿아 있으며, 또한 현대사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영광과 몰락을 겪어야 했던 가계의 비사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할아버지의 영광을 기억하는 한편, 아버지의 훼손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아들은 도시로 떠난다. 이처럼 이균영 소설에서 고향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떠난 아들이 언젠가 돌아가야 할 존재의 근원, 가족의 근원으로 그려진다.

3. 전통과 활력의 장

이균영 소설에서 고향은 가족의 공간으로 표상되는 한편, 전통문화와 민간 풍속 그리고 지역민의 활력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런 점에서 광양의 전통 문화와 지역민들의 역동적인 삶을 그려낸 단편 「터」(1978)는 주목할 만하다.²²⁾ 「터」는 「뿌리 깊은 터전」으로 발표되었다가 이후 개제된 작품으로, 광양의 전통문화인 장도를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이 소설은 장도의 제작 과정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경위, 전통적인 신분 질서의 잔재 등을 그리고 있다. 광양을 대표하는 전통공예인 장도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며, “세종대왕께서 광양산 패도를 차고 다니셨다”²³⁾고 할 정도로 유명하였다. 1978년 박용기(1931~2014)가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면서 장도장이 되었고,²⁴⁾ 현재 그의 아들 박종균 역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장도장의 길을

21)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균영 소설 가운데 『노자와 장자의 나라』(중앙일보사, 2001) 역시 고향을 아버지의 세계로 표상한다.

22) 이균영은 남녘 광양 읍내에서 대대로 행세해 온 토호 집안 출신으로, 그의 소설에는 고향 광양에 대한 장소애(topophilia)가 드러나 있다(정채봉, 「이균영 그리고 그의 작품을 말한다」, 『바람과 도시』, 책세상, 2007, 434면).

23)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광양시지』3, 홍익기획, 2005, 57면.

24)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1994, 314면.

건고 있다. 소설 「터」의 주요 인물 윤익상은 장도장 박용기를 모델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소설 「터」는 광양 땅에서 대대로 은장도 제작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윤익상과 별랑에서 광양으로 이주하여 장터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된 이상노 사이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광양의 민간 풍습과 장터 사람들의 활력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소설의 서두는 마당가에 떨어진 오동잎을 쓸어 모으고 있던 윤익상에게 이상노가 “술 개 병아리 덮치는 짝으로”²⁵⁾ 달려들어 다짜고짜 뺨을 때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깊은 인연이 없었던 두 사람이 이처럼 어느 가을날 서로 갈등을 빚게 된 직접적인 까닭은 은장도에 얽힌 민간 신앙 때문이다. 저간의 사정은 이러했다. 마을에서 아들 낳기를 학수고대하던 집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애기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다. 민간 풍습에 따르면, 이럴 경우 액풀이를 해야만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대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액풀이 방식은, 패도를 만들어 패도 자루에 태어난 아이 이름을 새긴 후 그것을 ‘성 밑 사람’²⁶⁾에게 가져다주면, 그 사람(백정)이 소를 잡고 나서 피가 식기 전에 그 패도를 가지고 또 한 번 찢러야 액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고향 별랑을 떠나 광양으로 이주하여 상인이 된 이상노는 백정이었던 자기 과거가 온전히 잊힌 줄 알고 있었으나, 마을 사람은 이를 알고서 액풀이를 위해 이상노의 집 마당에다 은장도를 던져 놓았던 것이다. 이에 분개한 이상노가 은장도를 만들어 준 윤익상의 집으로 쳐들어가 패악을 부렸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윤익상과 이상노는 각각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다. 젊은 시절 아내를 잃은 윤익상은 옥곡면 양반 가문으로 칼을 잡히려 갔다²⁷⁾가 청상 과부가 된 달렵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 이후 익상은 광양을 외우골에 거주하며 농지를 경작하는 한편, 가업인 은장도 공예를 통해 전통을 이어왔다.

“이때쯤이면 나락 벼는 일꾼들하고, 논바닥 벌을 쳐내고 체로 미꾸라지를 잡는

25) 이균영, 「터」, 『바람과 도시』, 책세상, 2007, 239면.

26) ‘성(城) 밑 사람은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성 밑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로 백정, 건립패, 대목, 곡재인 등의 천민을 의미한다(이균영, 「터」, 위의 책, 325면).

27) 칼잡이에게는 귀신이 붙지 않는다는 민간 풍속에 따라 칼잡이가 접이 들린 사람(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칼을 직접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잃었던 정신을 회복한다고 믿었다.

사람들하고……대두병을 들고 메뚜기를 잡는 아들놈하고, 논두렁에 구멍을 파고 사는 메추리 떼를 쫓는 아들놈하고……해서 온 들이 장바닥 안 걸었는가?”²⁸⁾

윤익상이 들녘에서 추수하던 광경을 떠올리는 대목이다. 윤익상이 ‘몸서리 무서리가 다니는 노동 끝에 맞이한 가을걷이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안겨준다. 사람들은 가을 들녘에서 밭곡식을 거두고, 벼를 수확하며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한다. 가을걷이가 끝난 들녘은 애 어린 할 것 없이 미꾸라지와 메뚜기 그리고 메추리를 잡느라고 분잡하기 이를 데 없다. 가을철 동들은 농경의 기쁨, 사람들의 어울림으로 가득 채워진다.

“한편으로는 잊지 못할 추억이 많은 때였지요. 새집을 찾고 썩 알을 줌과 참 썩 알이라니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썩 알은 조심해야지요. 구렁이 알하고 흡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땅꿀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벌들이 땅에 꿀을 파고 만드는 것인데 꼭 무덤가에만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땅꿀은 벌들이 송장 파 먹고 만든 꿀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그 맛을 한 번 본 후면 그런 것은 상관 없게 됩니다. 기막히게 맛있거든요. 나중에 우리는 땅꿀 집에 코끝만 대어보고도 이 꿀은 아카시아 꿀이니 밤 꿀이니 메밀 꿀이니 하는 따위를 모두 알아맞힐 정도였으니까요. 봄에 뜬부기 날아간 눈을 찾아가보면 그곳에는 틀림없이 우렁이가 많습니다. 뜬부기란 놈은 기막히게 알아내지요. 거기에다 산뿔나무에 열리던 오디하며 산다래 멀구 그리고…….”²⁹⁾

위는 이균영의 등단작 「바람과 도시」의 한 장면인데, 농촌에서 자라 도시로 떠난 이들이 새집을 뒤흔던 기억을 재현하고 있다. 자연과 함께 한 어린 시절은 한편의 삽화가 되어 도시인들의 기억 속에 오류이 담겨져 있으며, 그들이 침묵과 비밀로 도시에 맞서는 힘이 되기도 한다. “새집은 모든 휴식과 평온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곧 단순한 집의 이미지와 결합”³⁰⁾되며, “세계는 새집이다. 가없는 힘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그 새집 속에서 지켜준다”³¹⁾고 하는 바슐라르의 말처럼 도시로 이주한 이들에게 새집, 그리고 새집의 확장인 고향은 내밀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는다.

28) 이균영, 「터」, 앞의 책, 268면.

29) 이균영, 「바람과 도시」, 앞의 책, 88면.

30)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5, 233면.

31) 가스통 바슐라르, 위의 책, 241면.

「터」에서 윤익상은 농사일뿐만 아니라 장도를 만드는 일을 겸하며 살아간다. 광양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인 장도 공예는 그 제작 과정에서 무수한 단련과 한없는 정성을 필요로 한다. 장도는 쇠와 불, 물과 흙의 조합을 통해 탄생된다. 이 가운데 장도 제작의 비법은 흙(황토)³²⁾에 달려 있다. 그 지극한 단련 작업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다시 아들에게로 이어져 내려온다. 장도의 측면에 새겨지는 ‘일편심(一片心)’이라는 문구는 광양 장도의 상징으로, 장도를 만드는 장인과 이를 간직하는 사람 모두에게 삶의 좌표이자 도덕적 가치로 자리했다. 윤익상의 딸이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려고 하자, 윤익상은 자신이 지켜온 도덕률을 위반한다고 보아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것은 전통 사회에서 ‘일편심’이 갖는 여성적 가치, 즉 절개를 버리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윤익상은 아내의 설득을 통해 도덕적 가치는 시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성(城) 밑 늪’이라는 신분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향 별량을 떠나온 이상노는 광양 장터의 면을 뽑는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장삿길에 들어선다. 그는 고무줄 행상을 시작으로 하룻낮과 하룻밤을 꼬박 걸어 광양과 하동을 오가며 소장사를 하면서 밀천을 모아 광양 장터에 어엿한 가게를 차리고, 이제는 장꾼들을 대상으로 일숫돈을 놓으며 재산을 불려나가는 재미로 살아간다. 은장도로 인해 자신의 숨은 과거가 더 이상 비밀일 수 없음을 알게 된 이상노는 집안에 칩거하다가 장터로 나아간다.

“갈치 사시요 가알치, 아침밥 묵고 물질 나갔다 점심질에 건지운 갈치요, 남정네들이 보기만 허면 값도 안 묻고 사갈 갈치, 열일곱 묵은 처녀 갈치네, 갈치 사려 가알치, 한마리에 천 원인데 그 많은 돈을 다 받을수냐, 반에 분질러 오백 원이다. 오백 원이면 보리가 석 되, 보리 석 되를 다 받을소냐, 반에 잘라서 이백 오십 원이다…… 자 갈치 갈치 열일곱 묵은 처녀 갈치, 남정네들이 보기만 허면 값도 안 묻고 사갈

32) “레일 쇠를 잘라 크기대로 모양새를 잡은 다음 불에 달구어 녹초가 되도록 두드리고 또 불에 넣어 두드리기를 스무여 차례, 예닐곱 시간을 두드리서 세운 칼날. 줄로 갈아 모양을 다듬은 그 날은 쇠가 끊는 담금질로 유강을 갖추어야 하고 담금질을 끝내면……물로 식힌다. 그러니 아무도 모른다. 물로 식히기 전에 칼날을 갈마시(갈마을) 뒷산의 황토에 넣어두어야 하는 사실은. 어떻게 넣어서 어떤 손질이 가야 하나 하는 것은 입을 두고도 병어리다. 천하에 재상이라도 소용없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그랬다” (이균영, 「터」, 앞의 책, 240~241면).

갈치, 무심히 가는 이 예편네들아 이 소리 듣고는 샘도 안 나는가…….”

박센떡 목소리는 천리 타관에서 들어도 알지, 상노는 괜히 기분이 흥겨워졌다.
(중략)

마흔 살이 갓 넘었을까, 천정이 뚫어진 중절모자를 쓰고 새카맣게 때가 오른 흰 광목 중의를 입은, 얼굴에 털이 많은 옛장수였다.

“요새 옛이 쌀엿이다 흰 놈은 지 할애비가 장기수 석엇거나 지 애비가 바둑수 석인놈, 어이 옛 사시오 옛사. 고구매엿이오 고무매엿……예예……아따, 오십 원 어치가 꼭 오십 원어치냐 내 인심이 글치 못허지 자자, 어이 옛이오 고구매 엿…… 고구매라 황도밭에서 갯바람 쐬 것이 진짜 맛이다. 고구매라 다린 말로는 땅쫂이 라, 이름 한번 더럽구나, 고구매라 땅쫂이니 늘어진 놈이 제 맛이 날소냐, 옹그라든 것이 기신(기운이) 있지, 짚거름 받아야 옹그라든다 옹그라든다. 옹그라들어야 진짜맛이라, 짚거름 받아야 진짜맛이다. 짚거름이 그무엇이더냐, 이거 아는 사람이 옛편 입자여.”(밑줄은 인용자)³³⁾

이 대목은 생선장수와 옛장수가 손님을 불러 모으는 장면 묘사를 통해 장터의 활력을 전하고 있다. 광양방언(밑줄 그은 단어)과 비속어, 그리고 성적 농담 등으로 이루어진 장사꾼의 언어를 통해 지역성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³⁴⁾ 광양 인근 지역에는 광양 사람 하면 “고춧가루서 말먹고 빨 속 삼십 리를 꺼꾸로 기어서 간다”³⁵⁾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말은 광양 사람, 특히 광양여자의 강인한 생활력을 의미한다.³⁶⁾ 위 인용문에서 생선 장수 박센떡이 바로 그런 광양여자의 전형이다. 이처럼 광양 사투리가 주는 질박함,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서 생겨나는 리듬감 등을 담은 장꾼의

33) 이균영, 「터」, 앞의 책, 290~291면.

34) 광양 방언에 대해서는 기세관의 『광양 방언 사전』(한국문화사, 2015) 참조.

35) 이균영, 「터」, 앞의 책, 287면.

36) 이균영이 소설을 통해 고향 광양을 표상했다면, 동향의 문인 주동후는 「광양으로 오게」라는 시를 통해 장소애를 드러냈다. 시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광양으로 오게/ 늘 봄이 고 반짝거리네/ 남녘의 예쁘고 야무진 고을/ 光陽으로 오게/(중략) 경상도 말씨도, 전라도 말씨도 아닌/ 옹골진 光陽말로만 가슴을 여네// 열린 가슴속에 살아 있는 것들/ 냇물마다 거슬러 오르는 銀魚떼들음/ 白雲山 붉은 동백꽃을/ 유당공원의 여린 이팝나무 잎을/ 水坪리 진달래와/ 白雲山을/ 崔山斗선생의 글 읽는 소리들/ 석사리의 노란 오이꽃을/ 곱골의 두릅나물 취나물/ 갯가의 감발과 梅泉의 傲氣를/ 그모든 것들을/ 살아 있게 하고/ 지키고 光陽말로 전하면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네(하략)”(주동후, 「광양으로 오게」, 『광양이야기』, 도서출판 빛무리, 2000, 8~9면).

외침을 통해 장터의 흥겨움은 배가된다. 이상노는 박센떡의 흥정하는 소리에서 행상으로 시작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힘을 얻는다. 장터를 거쳐 향교에 이른 이상노는 광양의 전통을 이어온 전교에게 경건한 대접을 받게 된다. 이상노는 자신의 경제적 풍요가 광양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음을 깨닫고, 향교집을 인수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역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터」는 전통을 계승하며 고향을 지키는 사람과 신분의 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나왔으나 새로운 곳에서 정주(定住)하고 싶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 삶의 터전으로서 고향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후 사농공상이라는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자유연애를 비롯한 결혼 풍속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소설 「터」는 이 같은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풍속과 일상의 차원에서는 아직도 전통 사회의 질서가 잔존하고 있는 고향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고향을 표상하고 있기도 하다.

4. 역사의 진혼곡

이균영은 역사 속 개인의 삶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는 일련의 역사소설을 발표하였다. 『빙곡』은 광양과 서울을 배경으로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이고, 『떠도는 것들의 영원』은 만주와 백두산 일대를 중심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현장을 추체험하는 여로형소설이다. “기억의 단층들 속에 더께로 쌓인 존재함의 비밀들을 캐던 탐색가”³⁷⁾라는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이균영은 잃어버린 기억 찾기를 통해 근현대사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혼들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는 귀향 모티프를 통해 서사를 구축하고 있는 『빙곡』을 살펴보기로 한다.

『빙곡』은 전남 광양과 서울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조망한, 미완의 장편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박용태와 서울로 유학한 법대생 박용필 형제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두 형제는 여순사건과

37) 정현기, 『포위관념과 멀미』, 연세대출판부, 2005, 289면.

한국전쟁을 전환점으로 하여 영영 이별을 하게 된다. 소설은 박용태의 생일을 맞이하여 그의 딸 현서가 고향 마을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암에 걸려 이번이 마지막 생일이 될 것이라고 예감한 박용태는 그동안 고향을 떠나 살고 있던 지인들을 모두 한 자리에 초청한다.

박용태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이념 대립과 갈등이라는 격변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온 인물이며, 그가 초청한 친구들도 이 같은 과정에서 동지로 혹은 적으로 마주했던 사이이다. 소설은 해방 공간을 대표하는 여순사건에 대한 광양 지역의 대저 양상을 보여준다. 박용태는 여순사건이 발발한 이후 광양 지역의 사회운동을 주도한다. 여순사건 이후 광양 지역에서 좌익과 우익이 일진일퇴를 겪는 과정에서 박용태는 관공서나 지서를 습격하거나, 우익 인사들을 살해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는 여순사건 이후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역사적 전망이 서로 맞서는 상황에서 압곡 지역이 개인적 복수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박용태는 역사적 전변 속에서 정치 권력의 향방에 따라 무수히 부침하며 살아가게 된다.

박용태의 동생 박용필 역시 해방 공간의 역사적 격랑에 휩싸이면서 삶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인물이다. 박용필은 법학전문학교를 마치고 서울대학교로 편입하여 법관으로 입신하고자 했으나, 해방기에 7인회라는 비밀독서회 활동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박용필은 결국 해방 이후의 분단 사회에서 떠도는 영혼으로 남게 된다. 현서는 삼촌 박용필이 남긴 대학노트와 낡은 사진을 통해 찬란한 청춘의 한 시절을 역추적하며, 그녀의 아버지와 삼촌을 거쳐 아들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질곡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한다.

「현서 양도 이 노트 다 읽어보았으면 궁금한 것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캐보거나 알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몇 년 후엔 새 시대예요. 21세기」

그렇지만 우리 종수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할아버지들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략)

「아버님을 나는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형님께선 당신이 내게 늘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한때 힘든 상대였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할 지난 시대에 대한 빛이었어요. 이 시대와 화해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지요. 형님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미워해 본 일이 없어요. …… 이제 다 잊고 형님이 꿈꾸던 나라, 꿈꾸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시길……」³⁸⁾

이 대목은 현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의 변호를 위해 삼촌의 친구인 정병철을 만나는 장면이다. 현서는 삼촌의 낡은 사진에서 친구 정병철을 발견하고 그를 찾아가 아들 중수의 변호를 맡기기로 결심한다. 정병철은 박용철과 함께 7인회의 일원으로 좌익 지하조직에 가담했으나, 해방 이후 이런 과거를 뒤로 하고 검사와 대법원 판사를 거쳐 집권층으로 승승장구하다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는 인물이다. 현서의 아버지 용태역시 가게가 궁핍하거나 자식의 취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병철을 종종 찾아가고는 했다. 『빙곡』에는 박용철과 박용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역사의 격랑을 헤쳐 나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그들이 설계하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담론이 담겨져 있다. 결국 이 소설은 역사적 격랑 속에서 치열하게 대립했던 민족이 21세기에는 서로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균영은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위시하여 유작으로 남은 장편 『빙곡』과 『떠도는 것들의 영원』에 이르기까지 기억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정치적 기억은 그의 소설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유작 『빙곡』은 그의 고향의 현대사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문학과 역사는 결국 기억의 서사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떠난 자들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영원성을 지니게 되었다면, 남은 자들은 떠도는 영혼들을 기억함으로써 이들을 진혼한다.

5. 맺는 말

이 글은 고향 표상을 중심으로 이균영의 소설 세계를 살펴보았다. 이균영 소설에서 고향은 가족과 전통 그리고 역사라는 의미가 중첩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균영 소설

38) 이균영, 『빙곡』, 『나뭇잎들은 그리운 불빛을 만든다』, 민음사, 1997, 359면.

에서 고향은 가족의 기원이면서 귀환의 공간이고, 지역의 전통과 민중의 활력이 자리한 마당이며, 역사의 격변 속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맞서 싸우던 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표상된다. 고향은 산업화 시기 가족의 삶을 비밀처럼 간직하고 침묵 속에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이들이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표상된다. 이균영 소설에서 고향은 아버지의 세계 혹은 부계적 전통의 세계로 표상되는데, 아버지의 세계는 훼손된 세계로 그려진다. 아버지의 세계는 산업화 시기 농촌의 붕괴로 인해 훼손되기도 하고, 집안의 정치적 야망이 한때는 찬란히 빛나다가 이후 오래도록 쇠절되면서 쇠락한다. 이균영 소설에서 고향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언어가 살아있는 공간이며, 근현대사의 격변 속에서 역사적 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곳이다.

그의 고향 광양(光陽)이라는 지명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이균영의 소설 세계는 빛을 향한 열정으로 축조되었다. 이균영 소설에서 고향은 산업화 이전의 자연과 농경사회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세계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이 자리한 곳이다. 이균영은 소설을 통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의 빛, 더불어 사는 세상을 비추는 역사의 빛을 향한 인간의 노정을 그리고 있다. 이는 시대의 어둠 속에 찬란한 등불이 되었던 사람들의 숨은 진실을 통해 역사의 전망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조화로운 공동체에 이르는 길, 역사적 성장의 길이기도 했다. 그와 절친했던 동향의 소설가 강호무는 소설 원고를 들고 찾아온 이균영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곤 했다고 한다. “문학은 사후(死後)의 일”이라고. 이 뜻 깊은 말은 이균영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균영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한국 근현대사에서 고향이 갖는 의미를 성찰해볼 수 있는 소설을 우리 곁에 남겨놓았다. 이 글에서는 텍스트 내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균영 소설 속 고향 표상을 살펴보았다. 지역사와 민족사 같은 텍스트 외적인 분석을 통해 이균영 소설의 고향 표상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주제어 : 고향, 표상, 가계, 전통, 활력, 광양, 진혼곡.

〈참고문헌〉

1) 텍스트

- 이균영, 『나뭇잎들은 그리운 불빛을 만든다』, 민음사, 1997.
 _____, 『노자와 장자의 나라』, 중앙일보사, 1995.
 _____, 『멀리 있는 빛』, 정음사, 1986.
 _____, 『바람과 도시』, 문학사상사, 1985(책세상에서 2007년 재간행).
 _____,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2) 연구논저

- 권성우, 「작품 해제-이균영 선생을 기억하는 어떤 마음의 등불」, 이균영, 『떠도는 것들의 영원』, 문학사상사, 2001, 245~252면.
 박규원, 「아내가 본 작가 이균영-여전히 남편의 따뜻한 사랑은 남아」, 이균영, 『떠도는 것들의 영원』, 문학사상사, 2001, 253~255면.
 백형심, 「이균영의 『떠도는 것들의 영원』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송봉은, 「한국 전후소설의 트라우마(trauama)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엄정호, 「소설에 나타난 은유 분석 시론」, 『반교어문연구』 13, 반교어문학회, 2001, 83~108면.
 이동하, 「인생을 관조할 줄 아는 예지의 힘」, 이균영, 『노자와 장자의 나라』, 중앙일보사, 1995, 264~271면.
 _____, 「작품론-80년대 작가 그룹의 선두주자, 이균영」, 이균영, 『멀리 있는 빛』, 정음사, 1986, 372~378면.
 정채봉, 「이균영론-종교적 의미와는 다른 원죄의식」, 이균영,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문학사상사, 1986, 393~397면.(「이균영 그리고 그의 작품을 말한다」, 이균영, 『바람과 도시』, 책세상, 2007, 433~438면에 재수록)
 정현기, 「작품론-홀로 서는 인간적 고뇌의 소설적 표현」, 이균영, 『멀리 있는 빛』, 정음사, 1986, 363~371면.

- 주동후, 「광양으로 오게」, 『광양이야기』, 도서출판 빛무리, 2000, 8~9면.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광양시지』3, 홍익기획, 2005.
기세관 엮음, 『광양 방언 사전』, 한국문화사, 2015.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6, 4~6면.
전광식, 『고향—그 철학적 반성』, 문학과지성사, 2010.
정현기, 『포위관념과 멀미』, 연세대출판부, 2005, 287~312면.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1994, 309~320면.
Bachelard, G.,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5, 223~242면.
Tuan, Yi-Fu, 구동회 ·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11, 287~316면.

<부록-이균영 작품 연보>

시기	작품명	장르	수록 작품집
1977. 1	바람과 도시	단편	바람과 도시(문학사상사, 1985/ 책세상, 2007)
1977. 4	흑색의 죽음	단편	멀리 있는 빛(정음사, 1986)
1977	색상대비	단편	
1978. 1	역 부근(驛附近)	단편	멀리 있는 빛(정음사, 1986)
1978. 4	살꽃이 다리	단편	바람과 도시(문학사상사, 1985/ 책세상, 2007)
1978. 5	풍화작용	단편	"
1978. 6	뿌리 깊은 터전(터[基]로 개제)	단편	"
1978. 10	복망의 그늘	단편	"
1978	망(望)	단편	
1978	아름다운 죄	단편	
1979. 3	저 언덕	단편	바람과 도시(문학사상사, 1985/ 책세상, 2007)
1979. 5	어두운 기억의 저편	중편	멀리 있는 빛(정음사, 1986)
1979. 11	살아 있는 바다	단편	"
1979	향수	단편	
1979	상념의 길	단편	
1979	분단	중편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개작
1980. 3	보리	단편	멀리 있는 빛(정음사, 1986)
1980. 10	어두운 거리의 침묵	단편	바람과 도시(문학사상사, 1985/ 책세상, 2007)
1980. 11	불이전	단편	"
1980. 12	불붙는 난간	단편	"
1981. 10	사라진 나라	단편	"
1981. 12	고도(古都)	단편	멀리 있는 빛(정음사, 1986)
1984. 2	멀리 있는 빛	중편	"
1984. 6	동동(動動)	단편	바람과 도시(문학사상사, 1985/ 책세상, 2007)
1984. 12	전신(轉身)	단편	멀리 있는 빛(정음사, 1986)
1984	마음의 문	단편	
1985. 7	연사(演士)	단편	멀리 있는 빛(정음사, 1986)
1985. 8	류우머티즘	단편	"
1985. 9	망명일지	단편	"
1985	새들의 나라	단편	
1986	작은 물줄기 깊은 강에 이르는 길목	단편	
1986	무서운 춤 외	동화	무서운 춤(샘터, 1986)
1986	겨울 꿈의 색상	장편	겨울 꿈의 색상(여학생사, 1986)
1995	노자와 장자의 나라	장편	노자와 장자의 나라(중앙일보사, 1995)
1997	나뭇잎들은 그리운 불빛을 만든다	중편(유작)	나뭇잎들은 그리운 불빛을 만든다(민음사, 1997)
1997	빙곡(氷谷)	장편(유작)	"
1997	자유의 먼 길	중편(유작)	"
2001	떠도는 것들의 영원	장편(유작)	떠도는 것들의 영원(문학사상사, 2001)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Home in Lee Gyun-young's novels

Park, Jang-rye

This paper is concerned on the representation of home in Lee Gyun-young's novels. Home in Lee Gyun-young's novels is represented in the form of the space that a family, a tradition, and a history is overlapped. Home in Lee's novels is the origin of a family and the space of a return. And home is represented for the ground that the tradition of region and the people's vitality is located. Also home is represented for a living foundation of people who fought to guard a humanity in rapid changes of modern history.

Home is represented for where people keep as a secret and go pioneered a new life in the city in silence through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Home in his novels is represented by father's world or the world of paternal tradition. Father's world in Lee's novels has portrayed the broken world. Father's world is often compromised due to the collapse of the rural in the industrial era, the political ambitions of the house is represented as frustrated as long decline since the once irradiate.

Home in Lee's novels is represented as the living space of the traditional culture and language in Gwangyang. And home is represented as where life is filled with people who have committed to the growth in historical upheaval in the modern history. As the nomination of Gwangyang symbolizes, Lee Gyun-young's novel world was built as a passion for light. And Lee Gyun-young exposed the light of nature as a source of life, and the light of history that reflects a community.

【Key words】 : home, representation, family line, tradition, vitality,
Gwangyang, requiem.

박장례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강사

(57762)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암3길 33-8

전자우편: pclblue@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8월 22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